

여수엑스포 개최지 결정 코 앞인데...

홍보관 앞 '홍물 공사장' 눈살

7년째 토목공사도 못 마쳐 사고 위험까지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 건너 편 도로변에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현장이 수년째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주)A종합건설은 지난 2000년 11월 수정동 235번지 일대 2만1천544㎡ 부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스포츠 센터 등이 들어서는 지상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건설측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내용만 변경했을 뿐 지금까지 토목공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때문에 집중 호우가 잦은 여름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맞은 편에 있는 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찾는 국내의 귀빈과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주민 김모(43·충무동)씨는 "홍보관을 찾는 수많은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여수의 첫 인상을 심어 주지 않을 까 우려된다"면서 "시급히 정비와 복구가 이뤄지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3일 '안전조치 이

행명령'을 내렸으나 토지 소유권이 한국자산신탁측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측에 공사부지를 원상복구 한 뒤 조경을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러차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경우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측은 오는 9월 20일로 건축허가 취소 청문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름철 잃은 입맛 되찾는데 건어물이 최고!



고흥 녹동항 물양장에 마련된 건어물 좌판에는 요즘 여름철 무더위에 잃기 쉬운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서대과 장어 등 건어물이 가득하다. 특랑만 연안에서 잡은 뒤 한여름 햇볕에 2~3일간 말린 건어물은 양념장을 바른 구이나 찜 재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잇따른 사망사고' 현대삼호중 특별 감독

노동부 목포지청 29일까지...기술요원 등 16명 투입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이 최근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2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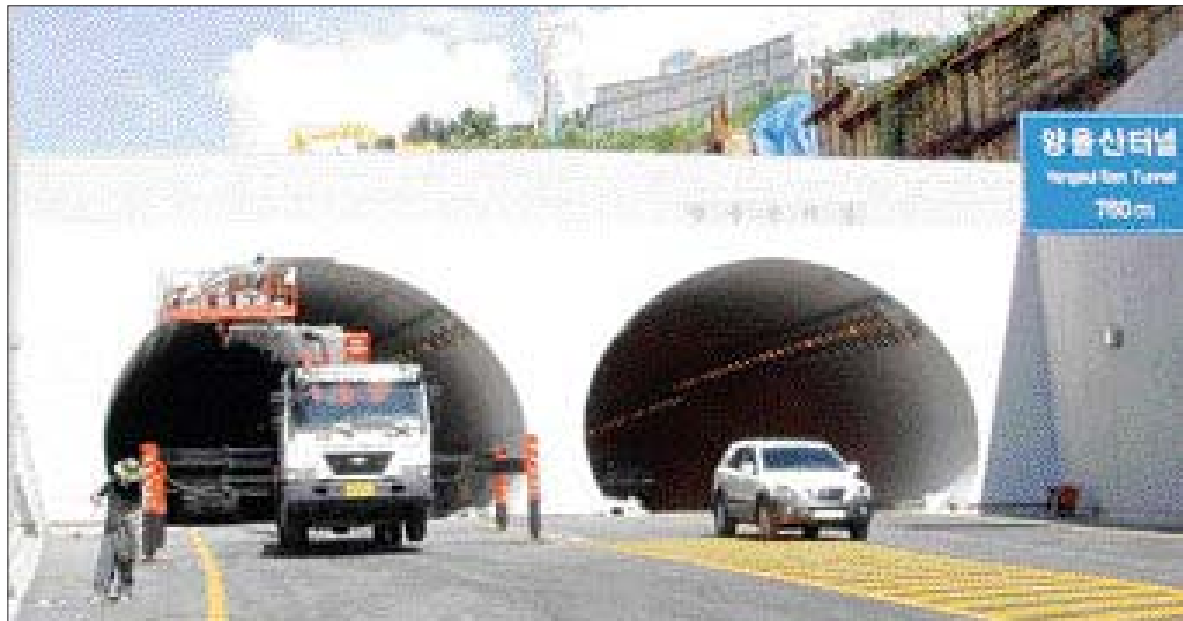
명을 비롯해 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요원 8명 등 모두 16명이 투입됐다.

목포지청은 이 기간 동안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 평가 프로그램 이행 여부 등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목포지청은 특별 감독 결과 안전 기준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고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목포=이성선기자 sslee@



목포 신도심~북항권 연결도로 개통

목포 신도심과 북항권을 연결하는 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로가 착공 6년만인 24일 개통됐다. 6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도로는 터널 760m를 포함해 총 연장 2.05km, 너비 30m로 하당 신도심과 북항 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된다.

목포 신도심과 북항권을 연결하는 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로가 착공 6년만인 24일 개통됐다. 6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도로는 터널 760m를 포함해 총 연장 2.05km, 너비 30m로 하당 신도심과 북항 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GS 칼텍스 여수공장에서 한 수 배워볼까!

오만·중국 엔지니어들 기술 연수 줄이어

GS 칼텍스 여수공장이 외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만 국영 소하르 정유사(Sohar Refinery Company) 엔지니어 12명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GS 칼텍스 여수공장내 원유 정제시설과 증질유 분해시설 등 7개

공정에서 1대 1 맞춤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GS 칼텍스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소하르 정유사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0명의 엔지니어들을 GS 칼텍스 여수공장에 보내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또 중국 정유사 엔지니어 30여명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GS 칼텍스 여수공장에서 기술을 전수 받고 있다.

GS 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정유 기술에 대한 해외 엔지니어들의 관심이 크다"며 "에너지 비즈니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우박 피해 사과 싸게 팝니다"

목포유통센터 특판전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김세익)가 우박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우박피해 사과 특판전을 열고 있다. <사진>

이번 특판전은 지난 달 말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과 청송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유통센터는 피해를 입은 조생종 사과 아오리 10여톤을 이달



말까지 정상 가격의 40% 수준인 개당 230원에 판매하고 있다. 관

매대금 전액은 출하 농가에 전달된다. /목포=이성선기자 sslee@

환경 살리고~ 포상금도 타고

"환경오염 행위,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고흥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환경오염 행위를 줄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23일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 대상은 대기와 수질, 축산폐수, 불법투기와 소각 등이며 이날부터 연중 접수를 받는다. 환경신문고인 '128' 전화접수와 병행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각

고흥군 환경오염 방지 인터넷 신고센터 개설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 신속한 현지확인을 거친 뒤 처리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자에게는 신고 처리내용이 통보되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인터넷 접수는 고흥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고센터'에서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고흥지역 인터넷 사용자 3만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이르고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화순 천운산 골재 채취 연장 '마찰'

"호남의 정맥 파괴 더이상 안된다"

동면 주민들 반대쪽 구성 등 반발

화순 천운산 골재 채취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천운산에서 골재를 채취해 오던 N 중공업은 오는 2008년 5월 기존 허가지역(7만3천107㎡)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5만6천332㎡에

대한 채취 연장을 화순군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천운산을 파괴하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토석채취의 기한연장에 대한 절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동면 농민회와 부녀회, 청년회, 번영회, 이장단 등 주민들은

'천운산 석산허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양덕승 반대추진위 공동대표는 "천운산은 동면과 남면, 한천면까지 연결되는 호남의 정맥으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파괴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N 중공업이 10여 년간 동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분진이 날리고 오수가 발생, 우천시에 화순천으로 유입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 선진음식문화 조기정착 총력

해 자문회의 등 개최

화순군이 지난 22일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진음식문화 화순 이미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깔스럽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화 개선선 실행사업소 확대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9월초 관내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을 통해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표지판을 부착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컵, 수저받침대, 개인위생 세팅지 등의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극단 '갯돌' 마당극 공연 24일 무안 재래시장 등

목포 극단 '갯돌'(대표 이방수)이 24일 무안을 재래시장에서 마당극 '남도 천지밥'을 공연한다.

'남도 천지밥'은 문화활동 선진작품이기도 한 이번 마당극 공연은 침체돼 가고 있는 무안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또 오는 9월 11일에는 같은 공연이 일로읍 재래시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나주 배 테마파크·생태마을 등 조성

나주, 국비 60억 투입 '나주배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나주시가 나주 배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비 60여억원을 지원받아 '나주 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 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배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주 배 테마파크 및 생태 정주마을 등을 조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새로운 국내 판매 전략 수립에 나선다.

나주시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배 주산지인 금천면과 봉황·세지면 등 1천500여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나주시는 과수원 규모와 영농실태,

유통, 토양검사 등 26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0년 이상 된 고목에 대한 폐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사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여정 자치발전기획단 팀장은 "나주 배의 경우 103년 전에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 꾸준한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FTA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향후 100년간 나주 배의 청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펴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친환경 '왕겨 팽연화' 공장 준공

나주 남평농협, 홍고추 세척 공장도

나주 남평농협(조합장·김병원)은 지난 20일 친환경 왕겨 팽연화(수분을 이용해 부드럽게 함) 공장과 홍고추 세척·탈수 자동화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남평읍 서산리에 위치한 친환경 왕겨팽연화 공장은 연간 1천500t의 팽연 왕겨를 생산하게 된다. 또 다도면 신동리에 설립된 홍고추 세척·탈수 자동



화시설은 건조추에 묻어있는 농약·먼지 등 이물질들을 세척·탈수, 연간 300t의 홍고추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